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7, pp. 47-92  
<https://doi.org/10.29212/mh.2020.117.4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백마고지 전투 간 국군 제9사단의 화력운용 고찰

— 포병운용을 중심으로 —

조남준\*

1. 서론
2. 백마고지 전투 전 상황과 양측의 준비 및 계획
3. 백마고지 전투경과
4. 국군 제9사단의 화력운용 분석
5. 결론

## 1. 서론

“역사적 사례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며 경험과학 분야에 서 최선의 증거력을 지니고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전쟁술에서는 더욱 그러하다.”<sup>1)</sup>라고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했듯이 전쟁사를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과정 / xojoxo@naver.com

1)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류제승 역, 『전쟁론』 (서울: 책세상, 1998), p. 144.

연구하는 것은 미래의 전쟁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부주의한 연구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특히 승리의 경험에 도취되어서 성공한 경험에 안주하게 된다면 더욱 파멸적일 것이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프랑스의 영웅, 포슈 원수가 “장차전은 이 전쟁이 종결된 형태로 시작될 것이다.”<sup>2)</sup>라고 한 말에서 잘 알 수 있다. 이 말처럼 프랑스는 자신들이 강점을 보였던 전차와 항공기에 대한 부분은 경시한 채, 다음 전쟁도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참호전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마지노선을 건설하였으며, 독일군의 주공도 벨기에 쪽을 지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아르덴 숲을 돌파한 독일의 강력한 전차군단 앞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패권국 중 하나였던 프랑스는 불과 7주만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처럼 과거 승리한 역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각 요소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을까? 우리 국군이 승리한 대표적인 전투인 백마고지 전투를 살펴보자. 백마고지 전투는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국군 제9사단이 중국군 제38군의 공격을 받아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뺏고 빼앗기는 사투를 벌인 끝에 고지방어에 성공한 전투였다.<sup>3)</sup> 이 전투의 결과 중국군은 약 1만여 명이 사상 또는 포로가 되었고 국군 제9사단은 3,500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그리고 국군은 철원평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유엔군의 전체적인 작전 주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신뢰도를 회복하여 국군의 증강과 발전에 크게 기여

2) 칼 하인츠 프리저, 진중근 역, 『전격전의 전설』 (서울:일조각, 2007), p. 513.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0권 :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 (서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 396.

하였다.<sup>4)</sup>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백마고지 전투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다루고 있으나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이는 특히 화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하다. 화력과 관련하여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군의 전술교리는 “화력에서 우위를 점하라. 그러면 전투의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화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5)</sup> 대한민국 육군 야전교범1 『지상작전』은 “화력기능은 작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의 핵심능력을 파괴시켜 작전수행간 주도권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화력기능은 타 전투력에 비해 전투력 지수가 매우 높고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다.”<sup>6)</sup>고 하여 전투에서 화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전투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 화력에 대하여 기존 연구들이 백마고지 전투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먼저 국방부 공간사에서는 전투의 배경, 과정과 의의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전투 간 전술적 행동들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있으며, 화력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실들을 나열하였을 뿐 별다른 평가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화력운용의 결과만 기술되었을 뿐 긍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들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화력계획의 경우 포병부대들의 전투편성만 나와 있을 뿐 생략되어 있다.<sup>7)</sup>

국방부의 또 다른 공간사인 한국전쟁전투사 중 『백마고지전투』는 전투상보의 화력계획을 기술하고 전투과정에서의 화력운용에 대해

4) Ibid. pp. 429~430.

5) 스티븐 배시, 김홍래 역, 『세계의 전쟁2: 노르망디 1944』 (서울:도서출판 플래넷미디어, 2006), p. 25.

6) 육군교육사령부, 『지상작전』 (대전:육군본부, 2019), p. 4~36.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p. 396~430.

서도 충실하게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연합자산에 대한 운용이나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한국군 전투상보를 기초로 작성한 한계로 인해 미군의 화력운용에 대해서 기술이 일부 미비하다.<sup>8)</sup>

온창일의 『한민족 전쟁사』는 국군 제9사단이 강력한 화력지원과 적절한 부대교대 및 예비대 적시 투입을 통해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마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화력에 관련된 기술은 특정 시점에 발사한 포탄의 발 수 정도이다. 평가 역시 ‘강력한 화력지원’ 정도로만 표현되었을 뿐 어떠한 화력계획이 있었고 어떻게 실시되었는가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sup>9)</sup>

나중남의 “백마고지 전투의 재조명: 국군 제9사단의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 분석을 중심으로”에서 국군 제9사단의 전투 효율성의 측면에서 백마고지 전투를 살펴보며 정보, 기동과 화력 등 전장의 제 요소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작전수행방식을 구사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전투는 기동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대신 결과 분석시 피아 포병 사격을 비교하고 아군 항공 지원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일자별 탄약 소모량을 제시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화력운용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화력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누락되어 있다.<sup>10)</sup>

육군 포병학교의 『포병 전투사례집』은 화력에 중점을 두고 기술을 하였다. 하지만 전투 실시간 내용은 국방부 공간사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리고 결과 분석의 경우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의미를 도출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현재의 교리를 토

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전투사: 백마고지 전투』(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pp. 42~258.

9) 온창일, 『한민족 전쟁사』(경기도: 집문당, 2011), pp. 986~988.

10) 나중남, “백마고지 전투의 재조명-국군 제9사단의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2017, 제105호), pp. 45~93.

대로 추측하였기 때문에 근거가 부실하다. 또한 화력계획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sup>11)</sup>

Bryan R. Gibby의 “The battle for White Horse Mountain september–october 1952”은 미군 관측장교의 증언을 바탕으로 전투 간 화력운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군측 자료 위주로 작성된 한계로 인해 전투 간 화력은 한국군이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전투 초기에 대한 내용만 상세할 뿐 후반부 내용은 부실하다.<sup>12)</sup>

이처럼 현재까지 백마고지 전투에 대한 연구들은 기동을 중심으로 전투를 분석하고 있으며 화력과 관련한 부분은 누락되거나 다루더라도 사용한 탄약량을 바탕으로 한 분석 정도만이 존재하고 있다. 화력에 대해서 비교적 충실하게 기술한 연구들도 한국 또는 미국 중심으로만 기술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화력운용에 대한 분석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전투 간 화력운용에 대해서 분석한다면 백마고지 전투의 진정한 실체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국군 제9사단과 중국군 제38군의 전투를 12차례에 걸친 각 공방전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전투에 영향을 끼친 화력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백마고지 전투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 분석의 방법을 사용한다. 문헌은 1차 사료인 국군의 『전투 상보』, 미 9군단의 특별보고서와 미 군사고문단의 보고서, 참전용사들의 증언들이 담긴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과 2차 사료 중 공간사인 국방부의 『백마고지 전투』와 『6·25전

11) 육군 포병학교·화력센터, 『포병 전투사례집』 (전라남도: 육군 포병학교·화력센터, 2014), pp. 259~272.

12) Gibby, Bryan R., “The battle for White Horse Mountain september–october 1952”, *Army History* (Fall 2013, vol. 89), pp. 26~47.

쟁사』를 중점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투에서 제9사단의 화력운용을 분석한다. 이러한 부분을 잘 표현하기 위해 서술 방식은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특정한 유형의 폭력이 상호 작용한 전투사를 재구성하기 적절한 서술의 구조인 내러티브 방식을 사용한다.<sup>13)</sup> 연구 범위는 395고지(백마고지)에서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총 10일간의 전투를 그 범위로 한다.

## 2. 백마고지 전투 전 상황과 양측의 준비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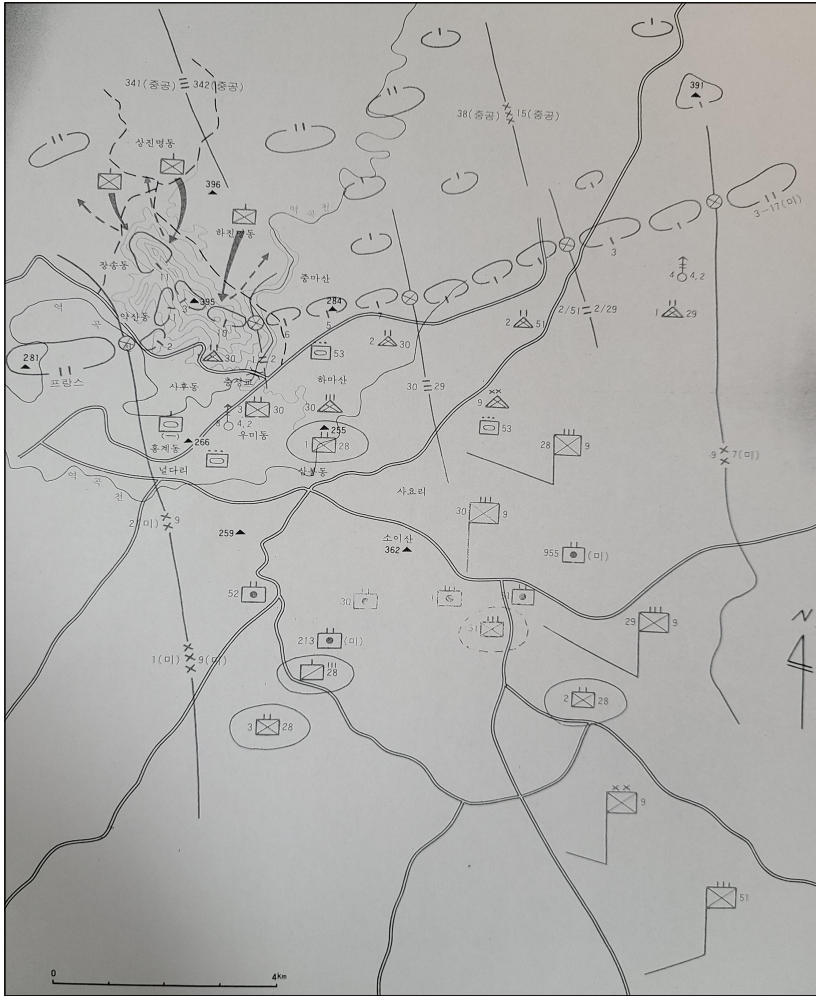
백마고지는 철의 삼각지 좌측, 철원평야의 개활지에 위치한 395m 높이의 고지이다. 그리고 역곡천이 고지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감아 돌면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10월 6일부터 15일까지의 작전기간 중 철원의 날씨는 대체로 청명하여 기상으로 인한 화력운용의 제한은 없었다. 국군 제9사단은 1951년 10월 17일 미 제3사단의 작전 지역을 인수하며 철원에 투입되었다. 그 뒤 1년간 소규모 전투만 있었을 뿐 큰 변화가 없었다.<sup>14)</sup> 하지만 1952년 6월 14일 중국군 제38군이 중국군 제42군과 교대하여 이 지역에 투입된 3개월 뒤부터 공격징후가 식별되기 시작하였다. 결정적으로 전투 3일 전인 10월 3일, 중국군 군관이 귀순하면서 중국군의 공격계획이 확인됨에 따라 국군 제9사단은 본격적인 전투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sup>15)</sup>

13) 손경호, “전투사 연구의 발달을 위한 제안: 클리오의 기초적 마르스 읽기”, 『세계역사와 문화 연구』 (2019, 제50호). p. 237.

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18~33.

15) G3 Section, Headquarters IX Corps, *Special after-action-report Hill*

<상황도 1> 전투전 피·아의 대치상황<sup>16)</sup>



395(White Horse Mountain) 6-15 October 1952 (Kansas: Headquarters IX Corps, 1952), pp. 6-7.  
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 부록 상황도 제2호.

사단의 대비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9사단의 배치 상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395고지부터 중강리에 이르는 12km의 정면에 좌로는 제30연대, 우로는 제29연대를 배치하였고 제28연대는 예비로 철원 부근의 양촌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경보병연대인 제51연대가 사단에 배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치 상황을 도식하면 위의 <상황도 1>과 같다.<sup>17)</sup>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적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확인하자 10월 3일 긴급히 소집한 연대장회의에서 작전명령 제85호를 하달했다.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395고지를 담당한 부대인 제30연대로 하여금 현 진지를 보강하고 2개 전차중대를 통합지휘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비연대인 제28연대를 복상시켜 역습을 준비하고 예하 각 부대로 하여금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제30연대와 긴밀한 협조하에 전투태세에 임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사단장은 이 밖에 적이 역곡천을 범람시킬 경우를 대비하여 1주일분의 식량과 탄약을 395고지로 미리 추진하고 공병 1개 중대와 노무대원 300명을 지원하여 진지를 더욱 보강하도록 조치하였다.<sup>18)</sup>

그리고 제9사단은 이 상황을 군단에 보고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획득하였다. 하지만 이때, 군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포병에 대해서 사료별로 상이한 내용이 확인된다. 먼저 제9사단의 전투상보는 백마고지 전투 간 지원받은 포병에 대해서 사단은 사단포병인 제30포병대대, 제1포병단 예하의 제51, 52포병대대, 그리고 추가로 지원받은 제50포병대대, 미 제213, 955포병대대, 그리고 제9중박격포 중대, 총 6개 포병대대와 1개 박격포 중대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sup>19)</sup> 그리고 전투 중간에 8인치 곡사포로 무장한 미 제

17) Ibid, p. 36.

18) Ibid, pp. 37~41.

19)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8권(9사단)』 (대전: 육군본부 군사

49포병대대에게 지원받은 기록이 있다.<sup>20)</sup> 전투 초기 제1포병단장을 역임하였던 예비역 대장 노재현 역시 제1포병단이 한·미 포병 6개 대대의 사격을 지휘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sup>21)</sup> 미 군사고문단의 보고서 또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sup>22)</sup> 국방부의 공간사 역시 이러한 내용을 동일하게 따르고 있다.<sup>23)</sup>

하지만 미 제9군단의 전투 후 특별보고서를 확인하면 다른 내용이 식별된다. 문서에서 전투에 참가한 포병은 먼저 제1포병단 예하 제51, 52포병대대와 사단 포병이지만 제1포병단에 작전통제된 제30포병대대, 후에 작전통제된 제50포병대대, 미군에서 작전통제된 미 제2로켓포대, 제2화학 박격포 대대 “A” 중대, 제36 공병 탐조등 중대의 두 개 반이 있었다. 그리고 제9사단에 지원된 포병으로 8인치 곡사포로 무장한 미 제17포병대대 “B” 포대를 작전통제하는 155mm 곡사포로 무장한 미 제213포병대대가 제1포병단을 일반지원 및 화력증원하고 있었고, 8인치 곡사포로 무장한 미 제424포병대대 “A” 포대를 작전통제하는 155mm 평사포로 무장한 미 제937포병대대가 사단을 일반지원 하고 있었으며, 155mm 곡사포로 무장한 미 제955포병대대가 10월 13일까지 제1포병단을 일반지원 및 화력증원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미 제49포병대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이 보고서는 최초 편성만을 기록하고 전투 간 최소의 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미 제49포병대대

연구실, 1987), p. 580.

20) Ibid, p. 532.

21) 신기철, 하보철,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 (대전: 육군 군사연구소, 2012), p. 174.

22)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AYUT-8202, Narrative w/supp. Docs, Box No.5802, Command Report, Oct. 1952, ROKA Combat Units, K MAG, 9th ROK Division, etc. (10 of 11)*, p. 20.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 43.

가 참가하였을 여지는 충분히 두고 있다.<sup>24)</sup> 그리고 당시 제30포병대대 작전주임을 역임했던 예비역 소장 전주식이 16개 포병대대를 지휘하였고 외국 연락장교가 약 10여 명이 지휘소에 같이 활동했다고 증언하였다.<sup>25)</sup>

그렇다면 어떤 전투편성이 정확한 것일까? 먼저 전주식의 증언의 경우 제9사단 전투상보의 기록과 미 제9군단의 특별보고서의 기록, 그리고 백마고지 전투 간 제1포병단의 작전보좌관으로 활동했던 예비역 준장 신정균이 전주식의 증언이 과장되었다고 생각된다고 한 증언 등을 통해 볼 때 일부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sup>26)</sup> 하지만 전주식이 사단의 사격지휘를 담당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6개 대대보다 더 많은 규모의 부대들이 활동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미 제9군단의 군수 기록에서 미 제49포병대대가 제51연대의 직접지원으로 전투편성이 변경되는 10월 9일 이후에도 8인치 포탄의 사용량이 1개 대대규모의 155mm 평사포 포탄의 사용량과 비슷하다는 점은, 각 미군 포병대대에 작전통제된 8인치 곡사포들이 운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4.5인치 로켓탄의 소모가 군수기록에 있다는 것은 4.5인치 로켓포대가 활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백마고지 전투 간 참여한 포병의 규모는 미 제9군단의 특별보고서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sup>27)</sup>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국군 제9사단과 미 군사고문단은 사단이 직접 통제 한 포병들만 기록하였지만, 미 제9군단의 경우 사단의 요청으로 군단이 지원했던 부대들까지 기록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24) IX Corps(1952), pp. 29~30.

25) 신기철, 하보철(2012), pp. 413~414.

26) Ibid, p. 246.

27) IX Corps(1952), p. Enclosure "B"-1.

이러한 곡사화기들 뿐만 아니라 미 제9군단은 미 제73전차대대 “C” 중대와 미 제140방공포대대의 4연장 50구경 대공포반을 국군 제9사단에게 작전통제 함으로써 측면을 방호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적의 포진지, 전차, 집결지, 보급품 집적소와 병참선 등 기계화된 표적에 대해 공중폭격을 실시함으로써 적의 기도를 파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미 제3사단 제7연대를 주간 4시간, 야간 2시간 내에 백마고지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제9사단을 지원하였다.<sup>28)</sup> 지금까지 확인한 국군 제9사단의 지원 및 배속부대의 전투편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고 국군 제9사단의 포병들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

28) Ibid, pp. 7~8.

&lt;표 1&gt; 국군 제9사단 지원 및 배속부대 전투편성

부 대	비 고
제51연대	경보병연대, 제9사단에 배속
제1포병단	제9사단 직접지원 <sup>29)</sup>
제30포병대대	105mm 곡사포, 제9사단 사단포병, 제1포병단의 작전통제 <sup>30)</sup>
제51포병대대	105mm 곡사포, 제1포병단의 포병
제52포병대대	105mm 곡사포, 제1포병단의 포병
제50포병대대	105mm 곡사포, 10월 7일 12:00부터 제1포병단의 작전통제
미 제2로켓포대	M16 4.5인치 로켓포, 제1포병단의 작전통제
미 제2화학박격포 대대 "A" 중대	4.2인치 박격포, 제1포병단의 작전통제
미 제213포병대대	155mm 곡사포, 미 제17포병대대 "B"포대 작전통제, 제1포병단 일반지원 및 화력증원 <sup>31)</sup>
미 제937포병대대	155mm 평사포, 미 제424포병대대 "A"포대 작전통제, 미 제9군단 일반지원 <sup>32)</sup>
미 제955포병대대	155mm 곡사포, 제1포병단 일반지원 및 화력증원 (10월 13일까지)
미 제49포병대대	8인치 곡사포, 10월 7일 12:00부터 제1포병단 화력증원, 10월 9일 08:00부 제51연대 직접지원으로 변경 <sup>33)</sup>
미 제36공병 탐조등 중대 2개 반	제1포병단의 작전통제
제9중박격포중대	4.2인치 박격포, 제9사단 배속
제53전차중대	M36 구축전차, 제9사단 배속
미 제73전차대대	M46 전차, 최초 "C"중대가 제9사단의 작전통제, 전투 간 중대를 지속적으로 교대함
미 제140방공포 대대 1개 반	4연장 50구경 대공포, 제9사단 작전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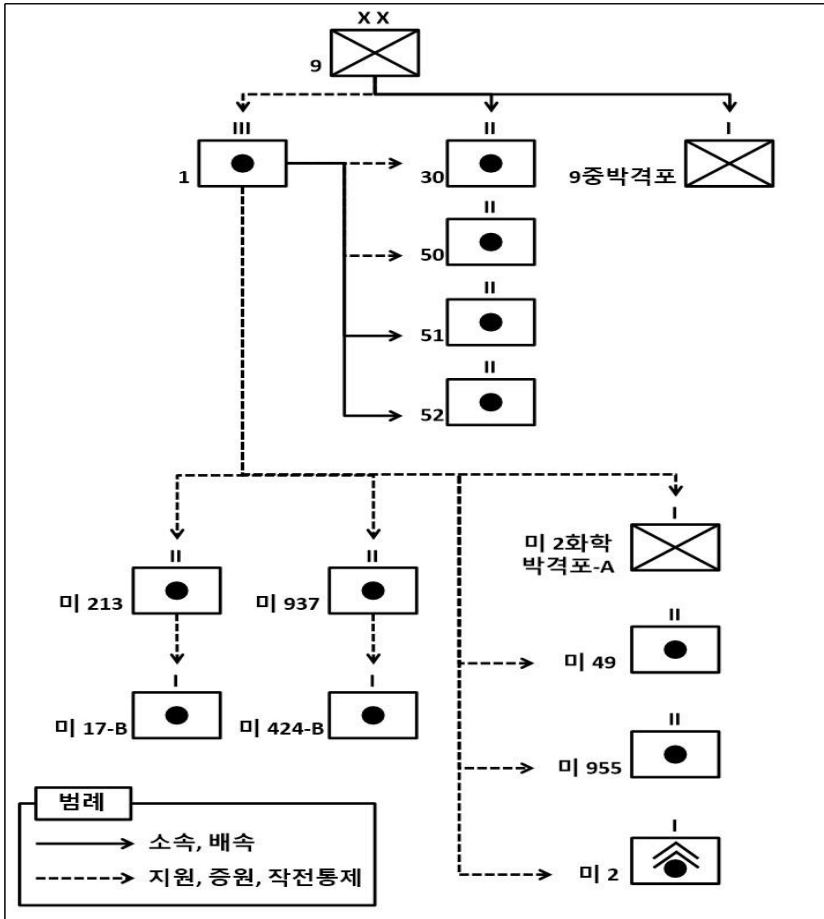
29) 포병부대가 특정 작전부대가 요구하는 화력지원을 즉각 제공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표준 전술적 임무의 한 형태, 이 경우 제1포병단은 제9사단이 원하는 화력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함. 육군교육사령부, 『군사용어사전』 (대전: 육군본부, 2012), p. 538.

30)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기간에 지휘관이 행사하는 권한을 말하며, 이 경우 제9사단이 제30포병대대에 대한 권한을 제1포병단에게 인계한 것임. Ibid, p. 407.

31) 포병부대가 작전부대 전 지역에 포병화력을 제공하면서 2차적으로 타 포병부대의 화력을 증강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표준 전술적 임무의 한 형태, 이 경우 미 제9군단 전체에 화력을 제공하면서 제1포병단의 화력을 증강하는 것임. Ibid, p. 385.

32) 포병부대가 작전부대 전 지역에 포병화력을 제공토록 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표준

<그림 1> 국군 제9사단 포병 전투편성



이렇게 충분히 증원된 전력을 바탕으로 국군 제9사단은 395고지에 대해서 강화된 방어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하였다. 우선 기동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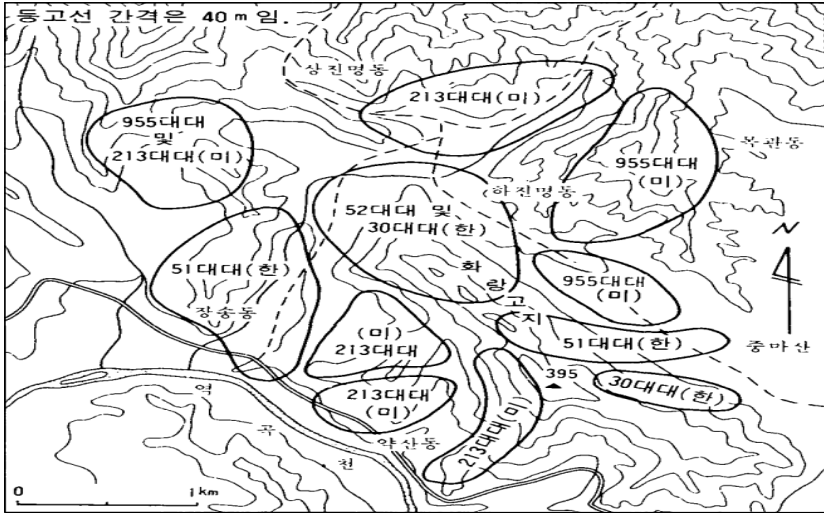
전술적 임무의 한 형태, 이 경우 미 제937포병대대는 미 제9군단 전체에 화력을 지원하며 제9사단에서 군단에 요청시 제9사단에게 화력을 지원함. Ibid, p. 385.  
33) 육군본부 군사연구실(1987), p. 532.

으로 제30연대의 예비대대인 제3대대를 395고지로 진출시켜 그 동쪽 능선의 일부 진지를 인수했다. 이로써 395고지에는 사실상 2개 대대가 배치되었다. 제3대대는 예하 3개 중대 중 1개 중대만 주저항선에 배치하였고, 제11중대는 전초로 395고지 북쪽의 화랑고지로 추진 배치하였으며, 제9중대는 예비로서 남쪽의 충성교 부근에 대기시켰다. 제2대대는 395고지 동쪽의 284고지 일대에 배치함으로써 연대의 예비는 제9중대 1개 중대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병력을 더욱 보강한 제30연대는 다시 공병과 노무대의 지원을 받아 4일 새벽 04:20까지 철야 작업으로 진지와 장애물을 증설 및 보강하였다. 하지만 불행히도 전투 때는 중국군의 포격으로 인해 장애물들은 무위로 변하고 말았다.<sup>3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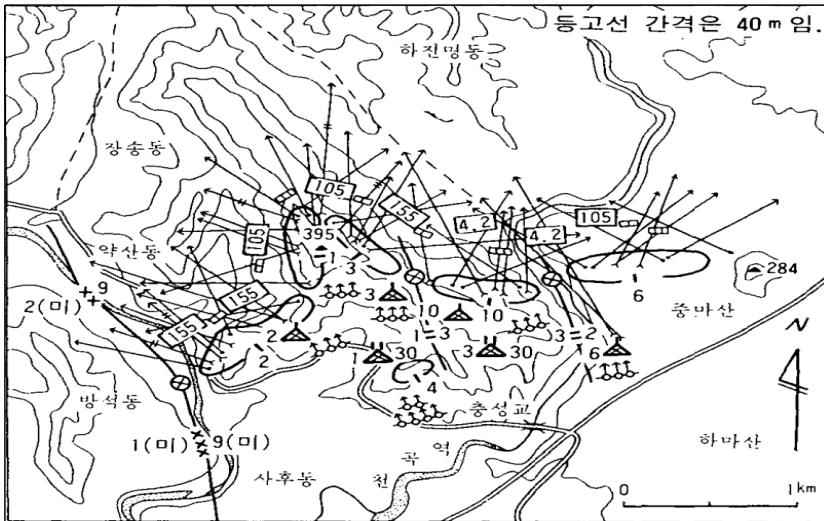
이러한 기동계획과 더불어 진지 조정과 추가된 화력자산을 바탕으로 화력계획 또한 새롭게 수정되었다. 제9사단은 추가적으로 배정된 화력자산들을 배분하여 곡사화기, 직사화기, 기동과 장애물이 통합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하였다. 기동계획과 화력계획, 그리고 화력대 할당표는 다음 <상황도 2, 3>과 같다.

3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47~48.

<상황도 2> 화력대 편성도<sup>35)</sup>



<상황도 3> 기동 및 화력계획<sup>36)</sup>



35) Ibid, p. 49.

36) Ibid, p. 42.

그리고 원활한 화력지원을 위해서 추가적인 준비들도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 첫째, 유선 매설이었다. 당시 무선은 소통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었고 유선도 적 포탄에 의해서 단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제9사단은 유선을 포병탄피를 이용하여 30cm 이상 깊이로 연대와 대대의 관측소까지 매설하였다. 이 작업은 전투 전까지 전방 2개 연대, 4개 대대 관측소가 완료되었다. 물론 이 과정은 매우 힘들어 작업을 담당한 제30포병대대의 작전주임의 동기였던 황 중위는 울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 덕분에 전투 간 유선단절 없이 원활한 화력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sup>37)</sup>

둘째, 사격지휘소(Fire Direction Center, FDC)와 사격진지에 대한 강화였다. 당시 포병들은 포병진지의 유개화 개념이 희박했고 개활지에서 방열 및 사격을 하였다. 하지만 백마고지 전투에서의 포병들은 포진지는 1.5m 이상 모래주머니를 이용하여 방호벽을 만들었고, 사격지휘소는 8mX15m 크기 2m 깊이로 파고 가로 세로로 몇 겹을 모래주머니를 쌓아 강화했다. 그 결과 전투 셋째 날 사격지휘소에 직격탄이 2발 떨어졌음에도 지휘소 상부의 흙만 일부 파였을 뿐 지휘소 인원피해는 없었다.<sup>38)</sup>

그리고 화력자산의 눈이 될 관측반의 배치 또한 이루어졌다. 백마고지를 담당했던 제30연대는 제52포병대대가 직접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측반은 사단포병이었던 제30포병대대에서 지

37) 신기철, 하보철(2012), p. 413. 여기에 대해 포병학교의 포병 전투 사례집은 통신망이 단절되어 기동부대 진출에 따른 화력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목표로 진격하던 기동부대는 아군 포병부대 사격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근거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둘째, 사격선이 단절되었다는 말은 사료상에 보이지 않는다. 셋째, 오폭과 관련해서 4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통신으로 인해 오폭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어떠한 사료에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38) Ibid, pp. 414~415.

원을 나가고 나중에 지원부대 관측반을 일부 지원받아 내보내기도 하였다.<sup>39)</sup> 미군도 미 제213포병대대에서 2개의 관측반을 지원하였다. 이들은 각각 백마고지 정상의 관측소와 백마고지 동측의 284고지의 관측소에서 관측을 하였다. 미군은 이 관측소들을 각각 OP(Observation Post) Love(백마고지), OP Roger(284고지)로 불렀다.<sup>40)</sup>

이러한 포병화력뿐만 아니라 전차에 대한 준비 또한 진행되었다. 제9사단은 배속받은 제53전차중대에 소속된 3개 소대 가운데 2개 소대를 백마고지 남쪽의 판교리로 추진하고 1개 소대는 사단 관측소인 254고지 부근에 예비로 대기시켰다. 그리고 사단을 지원하기로 한 미 제73전차대대 “C” 중대와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우인접 사단인 미 제7사단 지역에 집결,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sup>41)</sup>

국군 제9사단이 이러한 준비를 하는 동안, 중국군 역시 그들이 1952년 추계 전술 반격 작전의 제2단계 작전 중 가장 큰 규모인 백마고지에 대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sup>42)</sup> 국군 제9사단과 대치한 중국군은 장융후이(江擁輝)가 지휘하는 제38군이였다. 중국군 제38군은 예하 제112사단, 제113사단, 제114사단 등 3개 사단 약 36,000명 규모였다. 중국군 제38군은 천덕산 서쪽의 금계곡에서 철원 평야의 북단의 외풍동 부근까지 도상 거리로 24km의 전투정면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중 서반부를 제113사단이 맡고, 그 동반부에는 114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제112사단은 효성산 북서쪽의 대전리 골짜기에 예비로 집결보유하고

39) Ibid, pp. 415.

40) Gibby, Bryan R.,(2013), p. 33.

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 44.

4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 418.

있었다.<sup>43)</sup> 이러한 중국군 제38군은 1개 포병단이 증원되어 산포·야포·유탄포 116문, 자동 추진포 4문, 탱크 8대의 지원을 받았다.<sup>44)</sup>

중국군의 전투준비와 관련하여 그들은 백마고지에서 패배한 이유가 너무 급하게 작전을 전개해 준비가 부족하였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sup>45)</sup> 중국군 제38군은 상급부대의 지침에 맞추어 충분한 준비와 사전연습을 한 뒤 백마고지를 공격하였다. 중국군 제38군의 준비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1952년 9월 14일 23:20부 하달된 덩화(鄧華), 양더즈(楊得志), 박일우, 간쓰치(甘泗淇), 장원저우(張文舟)의 연명으로 된 전술적 반격 명령을 알아야 한다. 그 명령에서 강조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46)</sup>

첫째, 반드시 준비가 철저한 상태에서 공격하라. 반복적인 정찰을 통해 적을 철저하게 파악한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세우고 비슷한 지형을 선정하여 연습을 실시하며 인원, 무기, 탄약 물자를 조정하라. 둘째, 전투 중 보병과 포병의 합동작전이 승부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주도면밀한 합동작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각 군에는 일정 수량의 전차가 배속되어 있다. 각 부대는 지형조건에 따라 전차의 기동 공격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병의 돌격을 지원하거나 혹은 적 측후방을 우회하여 적의 도주로를 끊고 적의 보병과 전차의 지원을 차단하며 우리의 젊은 전차부대를 단련시켜라. 넷째, 공격이 성공한 후 반드시 적의 연속 반격을 격퇴할

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30~34.

4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5), p. 419.

4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5), p. 420.

46) Ibid, p. 406.

준비와 반복적인 공방전을 며칠 더 전개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적의 인적 전력을 소모시킬 좋은 기회이며 진지 전방에서 섬멸전을 진행할 수 있다.<sup>47)</sup>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중국군 제38군은 백마고지에 대한 공격 준비를 했다. 우선 백마고지에 대한 정찰을 통해 국군의 배치를 확인했다. 이는 10월 6일 아침에 포획된 중국군 포로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포로는 중국군이 공격 며칠 전부터 포획한 유엔군 포로들로부터 고지에 배치된 한국군 규모와 배치 상태 등을 확인했다고 하며, 1개 대대 규모가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sup>48)</sup> 또한 중국군은 유엔군의 공중폭격에 대비하여 포진지를 요새화했다. 이는 유엔군의 항공정찰과 수색대의 정찰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중국군의 야포 진지 22개소, 대공포 진지 19개소 등 총 41개의 포진지가 골짜기와 능선마다 배치되었으며, 보병진지와 같이 유개화 하였거나 포구만 내밀고 사격할 수 있도록 튼튼히 구축되어있는 것이 발견되었다.<sup>49)</sup> 그리고 중국군은 철저한 사전연습을 실시하였다. 귀순한 군관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군 제340연대는 유사한 지형에서 4주간 공격작전에 대한 사전연습을 실시했다. 또한 각 중대마다 철조망과 지뢰를 파괴하기 위한 파괴통을 60개씩 확보하고 각종 실탄을 충분히 지급하는 등 공격물자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sup>50)</sup>

중국군은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백마고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공격 직전 평강 서쪽의 봉래호 수문을 개방하여

47) Ibid, pp. 407~408.

48) IX Corps(1952), pp. 6~7.

4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31~32.

50) Ibid, pp. 34~35.

백마고지를 감아 돌아 흐르는 역곡천을 범람시켜 백마고지에 대한 증원과 역습을 방해하고자 하였다.<sup>51)</sup> 그 뒤 제114사단 제340연대의 6개 중대와 별도의 2개 소대를 동원해 각종 화포 120문, 전차 8대의 지원하에 다섯 방향으로 나누어 백마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고자 하였다.<sup>52)</sup> 이렇듯 국군과 중국군 양측이 모두 충분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결전은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승패는 전투에서의 실시간 지휘 및 운영에 달리게 되었다.

### 3. 백마고지 전투경과

10월 6일 06:30, 중국군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국군추산 2,067발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제9사단은 사전준비 덕분에 비록 장애물과 참호들은 무력화 되었지만 인원피해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제9사단은 중국군 포병에 대한 강력한 대 포병사격을 실시하였다. 제9사단은 미군의 항공정찰과 중국군 귀순자 등을 통해서 중국군의 포진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sup>53)</sup> 국군이 확인한 중국군의 위치는 아래 <표 2>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제9사단은 대 포병사격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군단과도 공유하여 국군뿐만 아니라 미군 포병대대들도 10월 5일까지 대 포병사격 계획을 수령 받아 사격을 준비하고 있었다.<sup>54)</sup> 이러한 계획된 표적 이외에도, 적의 포격에 대해서 탄흔분석을 하여 추가 확인된 적 포병들에 대해서도

51) Ibid, p. 35.

5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5), p. 419.

5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45~50.

54) IX Corps(1952), p. 29.

강력한 제압사격을 하였다.<sup>55)</sup>

<표 2> 중국군 포진지 위치<sup>56)</sup>

지점	목표성질	지점	목표성질
CT 371433 CT 371463	야포진지 4개	CT 356473	대공포진지 2개
CT 368471 CT 366472	야포진지 6개	CT 353472	대공포진지 2개
CT 358459	야포진지 6개	CT 352471	대공포진지 2개
CT 365436	야포진지 2개	CT 351468	야포진지 4개
CT 359471	대공포진지 2개	CT 365475 CT 375472 CT 353468	대공포진지 7개

중국군은 국군의 대 포병사격으로 방해를 받으면서도 끝내 공격준비사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격에 돌입하였다. 중국군은 봉래호 제방을 개방하여 백마고지의 아군을 고립시킨 다음 제114사단 제340연대가 19:00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중국군의 공격은 제9사단이 강력한 화력으로 저항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공중에서 유엔군 항공기들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중국군의 포진지, 집결지, 전차등을 끊임없이 폭격하였고 야간에는 상공에 조명탄을 투하해 주었다. 지상에서 장사거리인 미군의 155mm, 8인치 화포들이 중국군의 포진지, 접근로 및 예상 집결지 등 중심지역을 집중적으로 강타하였고, 근거리로 접근한 중국군들은 관측반에 의해서 유도되는 국군 105mm 화포들의 포탄세례를 받았다.<sup>57)</sup> 또한, 야간에 장병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10분 단위로 조명탄을 사격하여 제9사단의 전투를 도왔다.<sup>58)</sup> 그리고 고지의 좌, 우 측면에서

5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5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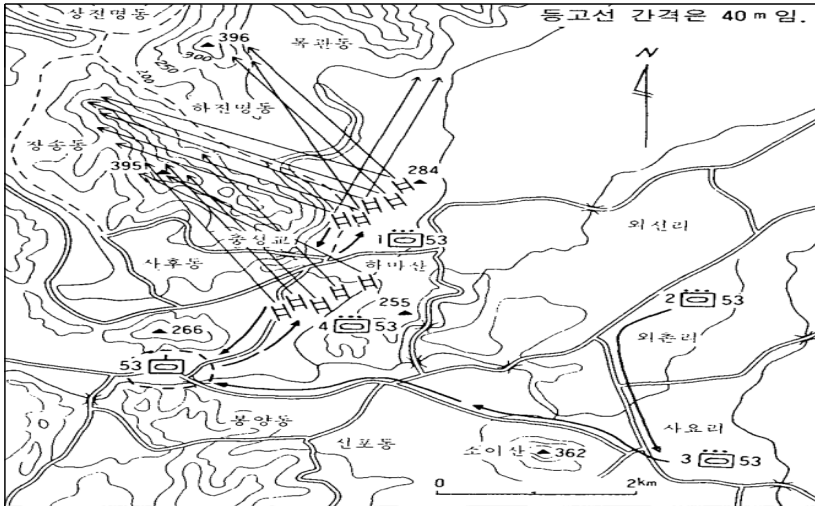
56) 육군본부 군사연구실(1987), p. 489.

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51~60.

58) 신기철, 하보철(2012), p. 299.

국군 제53전차중대, 미 제73전차대대 'C' 중대, 미 제140방공포 대대 1개 반의 4연장 50구경 대공포가 철새 없이 중국군을 강타하였다. 특히 전차들의 사격은 측면을 공략하려고 시도하였던 중국군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제53전차중대는 아래 <상황도 4>와 같이 우측면에서 중국군을 타격하였고 미 제73전차대대 'C' 중대는 사후동쪽에서 서측면에서 중국군을 타격하였다. 고지까지 도달한 중국군은 3차례에 걸쳐 제30연대와 공방전을 벌였지만 이미 화력으로 큰 타격을 받아 1시간 만인 20:15에 결국 격퇴되었다.<sup>59)</sup>

<상황도 4> 제53전차중대의 활동사항<sup>60)</sup>



제1차 공방전에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부대를 제112사단 예하 제334연대로 교체하여 25분만에 재공격을 실시했다. 공격은 고지 우측을 지향하였다. 국군 제9사단장 김종오

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51~60.

60) Ibid, p. 58.

소장은 사단 예비인 제28연대에 출동 준비를 명령하고 이 지역에 화력을 집중했다. 국군의 집중적인 포화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계속해서 고지로 접근했다. 결국 최후저지선에서 치열한 사격전과 수류탄전이 벌어졌고 22:00에 결국 제10중대 제2소대의 왼쪽 진지 일부가 돌파당했다.<sup>61)</sup> 하지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제9중박격포 중대가 빛을 발했다. 보병들이 진지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의 관측병 1명이 현지의 동굴 속에 남아 무전으로 중국군의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여 효과적인 진내사격을 실시했다. 제9중박격포 중대는 8문의 포 가운데 6문이 망가질 정도로 적극적인 화력지원을 실시했다.<sup>62)</sup> 이렇게 적의 예봉이 꺾이는 동안 사단장은 역습을 결심하고 사단 예비인 제28연대 1대대와 사단 수색중대를 제30연대에 배속시켜 역습을 실시했다. 역습은 자정 무렵 성공하여 제9사단은 주진지를 완전히 회복했고, 화랑능선과 제30연대 제3중대 정면을 공격하던 중국군도 주공의 패주와 함께 후퇴했다.<sup>63)</sup>

두 차례에 걸친 공격에서 패배했음에도, 중국군은 다시 제340연대로 부대를 교체하여 40여분 뒤인 7일 00:40에 공격을 재개했다. 이 공격은 제1차와 같이 1,000여 발의 공격준비사격 후 실시되었고,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집중적으로 백마고지에 투입하였다. 제9사단장은 즉시 전술공군을 요청하는 동시에 전 포병의 화력을 주진지 전면에 집중시켰다. 중국군은 백마고지의 주봉과 화랑고지 사이의 중간 부분에 돌파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제1, 2차 공방전 때와 마찬가지로 국군과 유엔군은 공군과

6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p. 402~403.

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 74. 망가진 박격포에 대해 사단은 장비 보충을 건의하였고 신형 포 12문이 춘천에서 헬리콥터 편으로 공수되어 8일부터 전투 종료까지 활용되었다.

6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 403.

포병, 그리고 전차 및 대공포의 집중포화를 중국군에게 집중하였다. 결국 중국군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05:10부터 물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군 중 일부가 주봉과 화랑고지 사이와 주봉 서쪽의 무명고지를 점령하였다. 사단은 화력을 집중하여 이들을 몰아내고자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제3차 방어 작전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sup>64)</sup>

제9사단은 제3차 공방전까지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주봉과 화랑고지 사이에 위치한 중국군으로 이들의 병력이 증원된다면 화랑고지가 고립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사단은 무명고지의 중국군 2개 중대를 격퇴하기 위해 14:00에 제30연대의 예비인 제3대대를 투입하여 역습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중국군은 국군의 역습에 대해 포격을 동반하여 강하게 저항하였고, 결국 3대대는 역습에 실패하고 17:15에 철수하였다. 한편 화랑고지의 제30연대 제11중대는 실탄과 식수의 부족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9:00부터 중국군의 포위망을 뚫고 백마고지 남쪽으로 철수하였다.<sup>65)</sup>

전초기지인 화랑고지가 중국군에게 피탈되면서 백마고지 방어도 위기에 처하였다. 중국군은 다시 제334연대로 부대를 교체하여 20:00에 주봉을 향해 공격을 실시하였다. 약 2시간의 치열한 교전 끝에 주봉에서 제1중대가 철수하면서, 전투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백마고지가 중국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단장은 제30연대로 하여금 돌과구 확대를 저지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제28연대를 역습에 투입하여 진지를 회복하고자 했다.<sup>66)</sup> 이때 백마고지 정상의 미군 관측소의 아담스(Joseph C. Adams Jr) 중위의 관측반은 미처 철수하지 못하고 병커에 위치하고 있었다.

64) Ibid, pp. 405~406.

6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93~97.

6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 408.

그들은 상황이 파악되자 미 제213포병대대에 자신들의 병커를 표적으로 하여 진내사격을 요청하였다. 미 제213포병대대는 한국군 포병에 추가 화력을 요청하여 155mm 곡사포와 작전통제된 8인치 곡사포, 한국군의 105mm 곡사포를 고지에 집중하였고 고지의 중국군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sup>67)</sup> 결국 중국군은 돌파구를 확대하지 못하였고 제9사단 제28연대는 8일 00:40을 기하여 역습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약 2시간의 전투 끝에 02:40에 백마고지의 주봉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의 전투로 지친 제30연대와 제28연대를 교대하면서 제4차 공방전은 종료되었다.<sup>68)</sup> 이때 공격 간 화력에 의한 우군피해 방지를 위해 향도가 대공포판을 메고 올라가면 그 전방에 포탄사격을 하고, 전진하면 다시 연신하는 방법으로 사격을 하였다.<sup>69)</sup>

8일 새벽 중국군은 백마고지 일대에 깔린 안개를 이용하여 그동안 야간공격만을 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05:30경 여명에 공격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화랑고지, 장송고지를 발판삼아 3면에서 고지를 공격하였다. 제28연대 제2대대는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짙은 안개와 유엔 공군기의 오폭으로 인해 08:10에 정상을 빼앗겼다. 이에 사단은 28연대 3대대로 역습을 실시하기로 하고 17:0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국군도 그동안보다 2배의 포격을 가하며 강하게 저항하였다. 이에 제9사단의 포병과 유엔 공군은 이전 전투와 같이 적의 포진지, 집결지, 진지 등에 집중적으로 화력을 퍼부었다.<sup>70)</sup> 이때의 화력지원에 중국군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 유엔군이 감청한 중국군의 통신에서 그들은 “상황이 나쁘다. 증원이 없으면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다. 7, 8중대는 병력이

67) Gibby, Bryan R.(2013), pp. 36~37.

6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p. 410~411.

69) 신기철, 하보철(2012), p. 415.

7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p. 411~414.

매우 적다. 포병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였다.<sup>71)</sup> 역습은 중국군의 강한 저항으로 주춤하기도 하였지만, 위와 같은 각종 화기의 집중적인 지원 아래 제28연대 제3대대는 23:00에 고지 정상을 탈환하였다.<sup>72)</sup>

다섯 차례의 공방전을 거치며 중국군은 2개 연대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제114사단 제342연대를 새롭게 투입하며 1시간 30분만인 9일 00:20에 공격을 실시하였다. 중국군은 이전과 동일하게 강력한 공격준비사격 이후 대대적인 공격을 실시하였다. 이에 제28연대 제3대대는 적의 포격이 멈추는 것과 동시에 대피호에서 나와 대대의 전 화기를 동원하여 최후 저지사격을 실시하였다. 특히 제30포병대대가 접근신관을 활용하여 포탄을 공중에서 폭발시켜 진지 전방을 살상지대로 만들면서 중국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sup>73)</sup> 결국 중국군은 큰 사상자를 남기고 40분 만에 후퇴했다. 하지만 중국군은 완전히 물러나지 않고 포격을 재개하기 시작했고 국군도 이에 대응하며 1시간 동안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졌다.<sup>74)</sup>

02:00경 포격이 종료되고 02:05에 중국군이 진지 전방에 나타나며 치열한 근접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제28연대 제3대대 장병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계속되는 전투에 점점 지쳐갔고, 03:00경 적이 병력을 증강하여 집중적으로 고지를 공격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며 철수하였다. 중국군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돌과구를 넓히며 전진하였고, 고지 남쪽 700m까지 진출하며 국군 제9사단은 전투이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

71) Gibby, Bryan R.(2013), p. 38.

7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 414.

73) 신기철, 하보철(2012), p. 414. 국방부 공간사에서는 시한신관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격지휘를 담당했던 제30포병대대 작전주임 전주식은 VT신관, 즉 접근신관이라고 증언하였다.

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p. 414~417.

다. 이에 제9사단은 가용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중국군의 추가 증원을 차단하고, 돌파구 확대를 방지하며, 그들을 현 위치에서 고착하고자 하였고, 결국 중국군은 06:00에 저지진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공격을 중지하였다.<sup>75)</sup> 사단은 약화된 제28연대를 대신하여 제29연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9일 10:00에 역습을 개시하였다. 제29연대는 연대에 작전통제된 전차중대가 중국군의 직사화기를 제압하고, 공군과 포병이 중국군의 포진지를 제압하며 전진하였다. 제29연대는 15:05경 8부 능선까지 진출한 뒤, 자정까지 총 4차례에 걸친 돌격 끝에 00:30에 주봉을 탈환하였다.<sup>76)</sup>

제6차 공방전에서 큰 타격을 받은 중국군 제342연대는 재편성을 끝내자마자 10일 04:30경 짙은 농무를 이용하여 반격을 개시하였다. 이러한 짙은 안개로 인해 국군의 전차와 항공기, 포병은 정확한 화력지원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계획된 탄막사격만으로 화력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제한사항으로 인해 제29연대 제1대대는 전력을 다했으나 적을 격퇴하지 못하고 9부 능선으로 후퇴하였다. 이후 병력을 수습한 제1대대는 제2대대의 지원군과 함께 역습을 개시하여 06:30에 정상을 탈환하였다.<sup>77)</sup>

중국군 제342연대는 제6차, 제7차 두 차례에 걸친 공방전에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08:00에 다시 공격을 감행하였다. 안개는 아침까지도 걷히지 않아 제9사단은 중국군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항공기와 전차의 지원도 여의치 않았고 이에 전투는 수류탄전으로 시작되어 곧 백병전으로 변하였다. 이 무렵 미 제213포병대대의 155mm 포탄이 고지 북쪽 능선을 타격하다 제29연대 제3대대 진지까지 떨어지며 큰 혼란

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143~145.

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p. 417~418.

77) Ibid, p. 421.

이 야기되었다. 이 피해에 제3대대는 고지의 9부 능선까지 밀리게 되었다. 제3대대는 병력을 수습하여 09:40 역습을 개시하여 50분 동안 세 차례의 공격을 실시했다. 하지만 정상을 탈환하지 못하자 연대장은 특공대를 선발하여 12:00에 재공격을 감행했다. 특공대가 육탄돌격을 통해 중국군의 기관총 진지를 파괴한 후 13:20경 제3대대는 정상을 다시 탈환하며 제8차 공방전은 끝났다.<sup>78)</sup>

제8차 공방전 이후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아군 전초기지들을 다시 탈환하고자 30연대로 하여금 역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중국군은 포기하지 않고 전투력을 상실한 제342연대 대신 제112사단 제335연대를 다시 투입하여 18:00에 공격을 실시하였다. 중국군은 교전 45분만에 제7중대의 진지를 돌파하였고 제29연대 제2대대는 무질서하게 후퇴하였다. 공격은 갈수록 더욱 거세지며 3대대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11일 04:00까지 사투가 이어졌다. 사단은 화력 자산들을 활용하여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고 중국군을 현 위치에 고착시켰다. 그리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역습계획을 수정, 제29연대와 제30연대를 동원하여 주봉과 서쪽의 장송고지를 점령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사단의 반격이 실시되었고, 제29연대는 12:04에 주봉을 탈환하였고 제30연대는 뒤이어 장송고지를 점령하였다.<sup>79)</sup>

고지를 다시 점령한 제29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중국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중국군은 15:30부터 포격을 시작하다 16:20에 공격을 개시하였고, 17:40경 고지 정상으로 쇄도하여 순식간에 고지 정상을 점령하였다. 고지 정상의 제1대대가 후퇴

78) Ibid, pp. 421~423.

79) Ibid, pp. 425~426.

하자 제2대대와 제3대대도 각 진지에서 물러났다. 사단은 다시금 화력으로 돌파구의 확대를 저지하며 적의 증원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병력을 수습한 제1대대로 20:00에 역습을 가하였다. 하지만 역습은 12일 01:50경 9부능선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였다. 이에 사단은 제30연대로 하여금 역습을 실시하기로 하고, 제29연대는 공격을 중지하고 현 진지 확보에 주력할 것을 명령하여 전투를 중지하고 원 진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제30연대는 제1대대를 주공으로 하여 08:00에 포병과 유엔공군, 전차의 지원하에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8부 능선에서 적의 기관총에 의해 고착되며 전진이 지연되었다. 이에 10:00경 연대장의 명령으로 제2대대와 제3대대를 제1대대의 양측방으로 진출시켜 제1대대의 공격을 엄호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 제1중대 제3소대의 강봉우 소위 등 3명이 수류탄으로 기관총 진지에 대해 육탄돌격을 하여 진지를 폭파하였다. 그 후 13:20에 정상탈환에 성공하며 제10차 공방전이 마무리되었다.<sup>80)</sup>

역습에 성공한 제30연대는 임무를 전환하여 제29연대와 진지를 교대하였다. 하지만 14:40경 중국군 제335연대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역습을 실시하였다. 이때 진지 교대 중이던 제29연대와 제30연대는 진지교대를 중단하고 동시에 역습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중국군은 1시간 10분 동안 교전에서 많은 손실을 입고 후퇴하였다. 제30연대는 17:30경 제29연대로부터 진지 인수를 완료하였고 이렇게 제11차 공방전이 끝났다.<sup>81)</sup>

12일 주간 공격이 실패하자 중국군 제335연대는 19:30부터 13일 03:35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야간공격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제30연대는 각종 화기들을 동원하며 완강하게 진지를 고수하

8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197~212.

8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p. 427~428.

여 이를 격퇴하였다. 제30연대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13일 02:00를 전후하여 제28연대에게 화랑고지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제28연대는 제30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15일까지 격전을 벌인 끝에 화랑고지를 점령하였다. 이어 제29연대가 화랑고지 선상의 전초기지를 탈환함으로써 중국군을 완전히 격퇴하였다. 큰 피해를 입은 중국군 제38군은 예하 사단을 축차적으로 철수시켜 전선에서 물러났다.<sup>82)</sup> 결과적으로 국군 제9사단은 10월 6일부터 중국군 제38군의 3개 사단 예하 7개 연대의 공격을 받아, 10여 일간 12차례의 쟁탈전을 반복하며, 7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격전 끝에 백마고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sup>83)</sup>

#### 4. 국군 제9사단의 화력운용 분석

지금까지 화력을 중심으로 백마고지 전투의 준비와 경과를 살펴보았다. 이 중 백마고지 전투에서 나타난 여러 화력과 관련된 요소들을 확인한다면 국군 제9사단의 화력운용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살펴볼 요소들은 지휘통제, 연합작전, 대포병 사격, 오폭에 대한 부분 등이다. 화력운용의 적극성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 연구들에서 잘 규명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제외한다.<sup>84)</sup>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국군 제9사

82) Ibid, pp. 428~429.

83) Ibid, p. 428.

84) 나중남(2017), pp. 80~82에 포탄 사격량, 항공기 출격횟수와 투하한 폭탄량 등이 잘 제시되어 있고 같은 시기 미군의 전투와 비교하며 화력운용의 적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단의 화력운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지휘통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백마고지 전투를 다루면서 화력분야의 지휘통제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하지만 백마고지 전투에서 화력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지휘통제에는 난점이 많았다. 국군 제9사단은 이때까지 제30포병대대 1개 대대만으로 작전을 수행해왔었다. 하지만 군단에서 각종 화력자산들이 투입되면서 지휘통제가 굉장히 복잡해졌다. 단순히 포병만 두고 보았을 때도 약 8개 대대로 증가하였고 화포도 5가지 종류로 다양하였다. 그리고 항공기도 유엔군 공군 뿐만 아니라 해군 항공기도 지원이 되며 지휘통제의 복잡성이 증가하였다. 혹자는 제1포병단이 사단을 직접지원하니 제1포병단의 지휘통제 기능을 활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1포병단은 1952년 1월 21일 창설된 부대로 창설된지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편 부대였다. 그리고 전투 도중 노재현 단장이 대령으로 진급하며 지휘관이 박병주 중령으로 교체되기도 하였다.<sup>85)</sup> 더욱이 국군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사단급 화력지원협조소(Fire Support Coordination Center, FSCC)를 운용해본 경험이 없었다.<sup>86)</sup>

따라서 제9사단은 효과적인 화력지원을 위해 약간의 융통성을 가미해 지휘체계를 구성하였다. 우선 제1포병단은 화력관련 사단의 최상위 부대로서 사단 전체의 화력을 통제하며 사단의 화력지원협조소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제9사단과 연계하여 작전환경이 적고 인력 및 능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보병과 연계된 근접지역에 대한 부분은 사단포병인 제30포병대대에게 맡겼다. 그리고 제1포병단은 전체적인 자산 배분과 군단의 자산을 활용

85) 신기철, 하보철(2012), pp. 172~174.

8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 56.

한 중심 깊은 지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군과 해군의 항공자산들에 대한 부분을 맡았다. 제1포병단은 작전주임인 이연호 대위를 중심으로 5명의 보좌관이 주·야간으로 임무를 수행했다.<sup>87)</sup> 아울러 효과적인 항공화력 운용을 위하여 미 공군에서 무전기를 장착한 지프차와 공군연락장교를 화력지원협조소에 위치시켜 이를 통해 항공화력을 운용하였다.<sup>88)</sup>

보병과 연계된 근접지역에 대한 화력은 제30포병대대가 중심이 되어 지휘하였다. 화력계획과 관련해서 근접지역의 화력집중점들은 제30포병대대가 계획하여 연락장교들을 통해 대대별로 분배하여 통제하였다. 관측장교들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30포병대대에서 우선적으로 파견되었기에 근접표적에 대한 부분들은 제30포병대대로 우선 접수되었다. 제30포병대대의 사격지휘소에는 작전주임 전주식 중위를 중심으로 수평계산병, 수직계산병, A, B, C포대 계산병이 위치하여 사격지휘를 수행했다. 그리고 10여명 가량의 미군을 포함한 각 포병대대의 연락장교들은 사격지휘소에 위치하여 제30포병대대가 분배해주는 사격임무를 소속대대로 전파하였다. 이처럼 보병과 직접 연관된 화력운용은 제30포병대대에서 수행했기에 제28연대장, 제29연대장, 제30연대장은 작전간 화력과 관련된 불만사항을 제1포병단이 아닌 제30포병대대로 와서 호소하였다.<sup>89)</sup>

이러한 이중적인 지휘구조는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전투간 대체로 원활하게 작동하였다. 이는 중국군이 정상을 빼앗고도 진내사격을 포함한 강력한 화력운용으로 인해 돌파구를 확대하지 못하고 번번이 국군의 역습으로 다시 정상에서 물러났던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준비단계에서 보았듯이 사전에 통신

87) 신기철, 하보철(2012), p. 246.

88) Ibid, p. 299.

89) Ibid, pp. 413~414.

선로를 깊게 매설하고 전투 간 무선통신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통신분야는 지휘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었다. 결론적으로 제9사단의 지휘통제는 많은 난점들이 있었으나, 융통성 있는 조치와 사전준비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연합작전에 대한 부분이다. 국군은 처음으로 사단급 화력지원협조소를 운용했을 뿐만 아니라 연합자산을 처음으로 직접 통제하였다. 제9사단은 미 제9군단 예하의 4개 포병대대, 3개 포병포대, 1개 중박격포 중대와 각종 항공자산들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연합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9사단은 우선 연락장교들을 활용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30포병대대의 사격지휘소에는 미 포병대대에서 파견 온 연락장교들이 약 10여 명 위치하고 있었다. 제9사단은 이들을 통해 사격계획과 표적을 하달하여 화력지원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단에서 하달하진 않았고 제4차 공방전에서처럼 미군을 통해 확보한 표적에 대해서 한국군이 지원을 하기도 하는 등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운용되었다. 또한 사단장의 요망사항을 군단의 포병이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 제9군단 포병단장 콜컨(Colkern) 준장은 군단의 포병 연락장교 1명을 사단장 차량에 동승시키기도 하였다.<sup>90)</sup>

연락장교들 뿐 아니라 미 군사고문단의 고문들도 연합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고문들은 포병대대까지 파견되어 각종 사항들을 지원하였다. 고문들은 각종 조언을 할 뿐만 아니라 연막탄이나 백린 연막탄 등의 특수탄 사용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었다. 제30포병대대의 경우 고문관인 스미스 소령은 대대원과 숙식을 같이하며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특수탄 사용에

9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 76.

대해서도 언제든지 승인해주었다.<sup>91)</sup> 하지만 이렇게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단의 경우 고문관들이 탄약 1일 사용량을 언급하며 사용량을 제한하려고 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군단장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 고문관을 교체하기도 하였다.<sup>92)</sup>

이렇게 제9사단은 연락장교들과 고문관들을 통해서 미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비록 몇몇 마찰음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연합작전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작전 기간 동안 700소티가 넘는 항공지원과 수 만발의 미군 포병대대의 사격량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중국군에게 고지의 정상을 빼앗겼을 때, 한국군과 미군의 화력을 집중하여 돌과구를 봉쇄하여 역습을 발판을 마련했던 것들에서 잘 나타난다.

세 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대 포병사격이다. 대 포병사격은 공군이 지상군을 지원하기 전 공중우세를 먼저 달성하는 것처럼, 포병이 기동부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화력의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이다.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6·25전쟁 때도 중요했다. 야전포병의 전술적 임무에 대해 다룬 1944년 발간된 미군 교범 FM 6-20, Tactical Employment는 공격임무와 방어임무 모두 첫 단계로 대 포병사격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방어임무 시 군단 포병의 임무로 우선 대 포병사격을 설명한 후 사단 포병에 대한 지원을 말하고 있다.<sup>93)</sup>

이러한 개념과 정찰 및 귀순자를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10월 5일까지 대 포병사격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작성되고 각 포병대대에게 분배되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중국군이 공격을 시작함

91) 신기철, 하보철(2012), p. 414.

9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 75.

93)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FM 6-20 1944 (OBSOLETE) : War Department field manual, field artillery, tactical employment*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4), pp. 43-52.

과 동시에 실행되었다. 다음 <표 3>은 전투 간 미 제9군단의 일반지원 포병들의 일자별 사격량이다. 해당 자료에서 대 포병사격, 임기표적에 대한 사격, 기타 파괴 임무에 대한 사격을 묶어서 기타로 표기하여 정확한 대 포병사격을 위한 사격량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보고서와 교범에서 일반지원 포병은 대 포병사격이 주 임무라고 밝히는 것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기타 임무로 발사한 사격량인 178,760발 중 상당량이 대 포병사격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이는 총 발사탄수인 392,189발과 비교하면 약 45%로 이 중 일부가 다른 임무의 사격이었을지라도 대 포병사격을 위해 상당히 많은 포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94)</sup>

94) IX Corps(1952), pp. 29~Enclosure "B"-1. 백마고지간 사용된 포탄량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내용이 상이하다. 한국군 전투상보와 미 군사고문단의 보고서는 전투 간 4.2인치 박격포를 제외한 포병탄이 총 203,477발이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미 제9군단의 특별 보고서는 총 392,189발이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전투편성에서 사단과 미 군사고문단은 사단이 통제할 부대만 고려하여 기록했고 탄의 사용 역시 직접 통제할 부대의 탄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표 3>의 일반지원 부대의 탄 발사량인 187,999발을 미 제9군단 특별보고서의 총 사용량 392,189발에 감하면 204,190발이 나오는데 이는 제9사단 전투상보와 미 군사고문단의 기록과 713발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105mm 곡사포의 경우 모두 사단에서 통제하였기 때문에 105mm 포탄의 사용량은 두 기록이 일치해야 하지만 사단 전투상보에 총 145,749발을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있는데 미 제9군단의 특별보고서에는 268,918발이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있다. 155mm 곡사포의 경우에도 사단 전투상보에 기록된 미 제213포병대대와 미 제955포병대대 2개 대대만 참가했기 때문에 두 기록이 일치해야 함에도 사단 전투상보에는 58,337발로 기록되어있고 미 제9군단 특별보고서에는 92,526발로 기록되어있다. 만약 사단이 자신들이 지시한 임무를 기준으로 포탄 사용량을 기록하였고 미 제9군단은 군수기록을 바탕으로 기록하였다면 차이가 설명되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백마고지에서 사용된 포탄 총사용량은 미 제9군단의 자료가 맞을 가능성이 더 크나 명확한 입증은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3> 미 제9군단 일반지원 포병 사격량<sup>95)</sup>

일 자	요란사격(발)	기 타(발)	총 계(발)
5일~6일	934	1,249	2,183
6일~7일	633	18,795	19,428
7일~8일	403	11,848	12,251
8일~9일	202	30,900	31,102
9일~10일	1,228	17,994	19,222
10일~11일	977	22,478	23,455
11일~12일	1,425	17,515	18,940
12일~13일	1,098	21,925	23,023
13일~14일	1,458	17,129	18,587
14일~15일	881	18,927	19,808
총 계	9,239	178,760	187,999

위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전투 간 대 포병사격은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대 포병사격은 실시간 획득되는 정보에 따라 계획을 계속 수정하면서 실시하였다. 전투 초기에는 중국군의 포병들이 유개화 진지에 배치되어 단기간만 제압할 뿐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중국군 포병은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8일 이후부터 포병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일자별 중국군의 사격량을 나타낸 아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95) Ibid, p. 31.

<표 4> 중국군의 일자별 사격량<sup>96)</sup>

일 자	사격량(발)
5일 18:00 ~ 6일 18:00	1,468
6일 18:00 ~ 7일 18:00	10,980
7일 18:00 ~ 8일 18:00	2,226
8일 18:00 ~ 9일 18:00	12,024
9일 18:00 ~ 10일 18:00	4,474
10일 18:00 ~ 11일 18:00	4,340
11일 18:00 ~ 12일 18:00	3,430
12일 18:00 ~ 13일 18:00	5,467
13일 18:00 ~ 14일 18:00	5,768
14일 18:00 ~ 15일 18:00	4,631
총 계	54,808

이처럼 제9사단은 사전에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교한 대포병사격계획을 만들고 전투 간 적극적으로 이를 실행했다. 그리고 전투 중 계획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중국군 포병에게 지속적인 출혈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진지공사를 통해 강력한 방호력을 보유하고 있던 중국군 포병이었지만 결국 큰 피해를 입고 8일 이후부터 전투력이 감소하여 효과적인 화력지원이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취약한 중국군의 작전지속지원 능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반론과 전투 초기 공격준비사격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화력을 운용하였기 때문에 후기에 발사량이 적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중국측의 피해자료가 없는 상황

96) Ibid, pp. 30~31.

에서 미 공군의 작전결과에 작전지속지원과 관련된 것은 4대의 차량과피만 있다는 것을 볼 때, 중국군의 작전지속지원능력에 대한 항공타격이 중국군의 포병능력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에는 의문이 생긴다.<sup>97)</sup> 또한 제5차 공방전 이후 중국군이 무전으로 포병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던 점과, 제9사단의 가장 큰 위기였던 제6차 공방전이 진행중이던 9일 00:20부터 10일 00:30 사이 중국군 사격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중국군은 초기뿐만 아니라 후기에도 포병지원이 필요했으나 능력이 부족하여 사격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 제9군단은 보고서에서 모든 결과를 종합할 때 대 포병사격이 중국군의 포병 효과성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짓고 있다.<sup>98)</sup> 따라서 효과적인 대 포병사격이 중국군의 포병에 타격을 주었고 이것이 전투승패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오폭에 관한 부분이다. 앞선 연구들은 모두 백마고지 전투 간 제9사단의 화력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였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5차 공방전 간 있었던 유엔 항공기의 오폭으로 인한 고지 상실과 제8차 공방전 간 있었던 미 제213포병대대의 오폭으로 인한 고지 상실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오폭들에 대해 분석한다면 백마고지 전투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오폭들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큰 난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 오폭들이 미군에 의해서 발생했지만 미군 기록에는 오폭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항공기의 오폭 같은 경우에는 한국군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자료들도

97) Ibid, p. 38.

98) Ibid, p. 31.

제한된다. 따라서 당일 안개가 짙었던 기상과 혼전이 반복되던 상황 속에서 조종사의 실수로 인한 오폭이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 제213포병대대의 오폭 같은 경우 최초 화력계획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거리가 짧은 화포는 아군 기동부대와 근접한 지역을 지원하고 사거리가 긴 화포는 중심 깊은 지역의 적을 타격하기 위해 운용된다. 이는 미군 포병교범에도 방어전투 간 경포의 대부분은 주방어지대와 아군쪽 중심으로 이어지는 방어지역, 그리고 역습을 위해 준비해야 하며, 사거리가 긴 화포는 대 포병사격, 차단사격, 요란사격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99)</sup> 하지만 <상황도 2>를 보면 편성에 의문이 생긴다. 미 제213포병대대의 화력대가 고지 서측 부분의 근접한 지역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리어 한국군의 105mm 화포들이 그보다 더 먼 곳에 화력대가 편성되어 있다. 즉 사거리가 더 긴 미 제213포병대대의 화력대를 근접한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오폭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 제213포병대대의 화력대를 근접한 지역에 설치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문건은 없지만, 화력이 더 강한 대구경포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고 추측된다.

여기에 더불어 제8차 공방전 간 화력지원을 위한 상황도 어려웠다. 오폭은 08:00에서 09:00 사이에 일어났는데 그날 기상은 짙은 안개가 11:00까지 걷히지 않아 시계가 불량하였다.<sup>100)</sup> 그리고 제4차 공방전 이후 고지 정상의 미군 관측소는 철수하였고, 고지 2km 동쪽의 284고지의 관측소에만 미군 관측반이 있었기 때문에 악화된 기상상황 하에서 정확한 화력을 유도하는

99) United States War Department(1944), p. 49.

1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 421.

것이 제한되었다.<sup>101)</sup> 그리고 미군 포병대대였기 때문에 한국군 기동부대와 의 연락수단도 없었으며 오폭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하는 것도 제한되었다. 따라서 오폭은 한국군 기동부대와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미군의 장사정 화포를 근접지역 화력지원 임무에 배정한 것과 악기상으로 관측자가 정확한 화력유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겹치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철원 북방의 395고지에서 10일 동안 12차례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며 중국군 제38군에게 승리한 국군 제9사단의 백마고지 전투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화력운용의 측면에서 국군 제9사단이 어떻게 전투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백마고지 전투 간 제9사단은 국군 최초로 사단급 화력지원협조소를 운용하며 연합자산을 포함하여 8개 포병대대, 3개 포병포대, 2개 중박격포 중대 그리고 각종 항공자산들을 통합 운용하였다. 그리고 전투 전에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면밀한 대포병사격 계획을 세웠으며, 그동안 경시하였던 중국군의 화력에

101) Sobieski, Anthony, *A Hill Called White Horse* (Indiana: AuthorHouse, 2009), pp. 195~208. 백마고지 전투에 참가했던 미군 관측장교 아담스 중위(1st Lt Joseph C. Adams Jr.)와 킬러웨이 중위(1st Lt Jack G. Callaway)의 증언록에 오폭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고지 정상의 아담스 중위가 제4차 공방전 이후 대대로 복귀하고 교대자가 없었으며 킬러웨이 중위는 계속 284고지에서 임무수행했다는 것을 통해 오폭 당시에도 284고지에서 화력을 유도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대비하여 생존성을 보장하고 통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다. 전투 실시간에는 계획 간의 실수로 인해 오폭을 유발하기도 하는 등 실수도 있었지만, 짧은 시간에 융통성 있게 지휘조직을 구성하였고 미군과의 원만한 연합작전을 통해 효과적인 화력운용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들이 더해지며 고지 점령을 위해 4주간 준비를 한 3배가 넘는 규모의 중국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과거 연구에서 관심을 갖지 않던 화력 분야를 중심으로 백마고지 전투를 재고찰 함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6·25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 분석을 통해 전투에 참가했던 포병 부대의 규모 등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전투에 대해서 규명되지 않은 부분들은 많이 남아있다. 특히 작전지속지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병참과 보급과 관련된 사항들, 특히 사단과 군단의 상이한 포탄 사용량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앞으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더해진다면 그동안 우리가 미처 몰랐던 6·25전쟁의 또다른 모습들에 대한 연구가 풍성해질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20. 9. 25, 심사수정일 : 2020. 11. 10, 게재확정일 : 2020. 12. 2.)

주제어 : 국군 제9사단, 백마고지 전투, 화력운용, 포병

## <참고문헌>

### 1. 1차 사료

신기철, 하보철,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 대전: 육군 군사연구소, 2012.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8권(9사단)』, 대전: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87.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AYUT-8202, Narrative w/supp. Docs , Box No.5802, Command Report, Oct. 1952, ROKA Combat Units, KMAG, 9th ROK Division, etc. (10 of 11) ,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archive.history.go.kr/catalog/view.do?arrangement\\_cd=ARRANGEMENT-0-A&arrangement\\_subcode=HOLD\\_NATION-0-US&provenanace\\_ids=000000000034&displaySort=&displaySize=50&currentNumber=1&system\\_id=000000052936&catalog\\_level=&catalog\\_position=-1&search\\_position=9&lowYn=](http://archive.history.go.kr/catalog/view.do?arrangement_cd=ARRANGEMENT-0-A&arrangement_subcode=HOLD_NATION-0-US&provenanace_ids=000000000034&displaySort=&displaySize=50&currentNumber=1&system_id=000000052936&catalog_level=&catalog_position=-1&search_position=9&lowYn=))(접속일: 2020. 6.7).

G3 Section, Headquarters IX Corps, Special after-action-report Hill 395(White Horse Mountain) 6-15 October 1952, Kansas: Headquarters IX Corps, 1952,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NL/contents/search.do?srchTarget=total&pageNum=1&pageSize=10&kwd=hill+395#!>)(접속일: 2020. 6.7).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FM 6-20 1944 (OBSOLETE) : War Department field manual, field artillery, tactical employment,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4,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NL/contents/search.do?srchTarget=total&pageNum=1&pageSize=10&kwd=fm+6-20>)(접속일: 2020. 6.7).

## 2. 2차 사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http://uci.or.kr/G500:1310377-02012047136110>

\_\_\_\_\_, 『6·25전쟁사 제10권: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http://uci.or.kr/G901:A-00064412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전투사: 백마고지 전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나중남, “백마고지 전투의 재조명: 국군 제9사단의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105호(2017):45~93.

<https://doi.org/10.29212/mh.2017., 105.45>

온창일, 『한민족 전쟁사』, 경기도: 집문당, 2011.

<http://uci.or.kr/G701:B-00047957351>

육군 포병학교·화력센터, 『포병 전투사례집』, 전라남도: 육군 포병학교·화력센터, 2014.

Sobieski, Anthony, *A Hill Called White Horse*, Indiana: AuthorHouse, 2009.

Gibby, Bryan R., “The battle for White Horse Mountain september–october 1952”, *Army History*, vol. 89, (Fall 2013):26~47.

3. 기타 참고자료

손경호, “전투사 연구의 발달을 위한 제언: 클리오의 기초적 마르스 읽기”,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50호(2019):219~244.

<https://doi.org/10.32961/JWHC.2019.03.50.219>

스티븐 배시, 김홍래 역, 『세계의 전쟁2: 노르망디 1944』, 서울:도서출판  
플레닛미디어, 2006.

<http://uci.or.kr/I410-ECN-2-2008-08-146053-4>

육군교육사령부, 『지상작전』, 대전: 육군본부, 2019.

\_\_\_\_\_, 『군사용어사전』, 대전: 육군본부, 2012.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류제승 역, 『전쟁론』, 서울: 책세상, 1998.

칼 하인츠 프리저, 진중근 역, 『전격전의 전설』, 서울: (주)일조각, 2007.

(Abstract)

## A Study on the Fire employment of the 9th ROK Infantry Division in the Battle of White Horse Hill

— Focused on artillery employment of the 9th ROK Infantry Division—

Cho, Nam-joon

The study attempts to research the Fire employment of the Battle of White Horse Hill, in which the 9th ROK Infantry Division won against the 38th Corps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in October 1952.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fficially and academically on the battle, however most of them are the study of analyzing the battle centered on maneuvers, whereas the role of firepower had been accepted less interests, in some cases, to extent of the just amount of ammunition that used during the battle. Even the numbers of artillery units participating are different based on studi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the strength of firepower mobilized, operational plans, command and control systems, and actual performance of those units, based on primary historical records, like combat situation reports(sitreps) from the 9th ID, special reports from the IX U.S. Army Corps, reports from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and testimonies from veterans.

According to the study, the 9th ID put more firepower assets into the battle than previously known. even though the 9th ID operated the division-level fire support control center for the first time in the ROK Army, it smoothly commanded and controlled huge amount of firepower assets through flexible measures and pre-preparation. Although there were also negative incidents such as misfires during the battle, they carried out the battle in a variety of ways in the joint operation with the U.S. military.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se fire employment was well illustrated by the 9th ID's success to dispel incoming Chinese troops through the front lines by rapid

fire employment. In conclusion, by using firepower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e 9th ID was able to win the Chinese troops three times more than themselves.

Keywords : The 9th ROK Infantry Division, The Battle of White Horse Hill,  
Fire Employment, Artillery